뿌리 내림

2024 SPRING NO.115

02 시작하며

죽 쒀서 남 주는 사랑
최영균 시몬 신부(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04 시대의 窓

미디어 시대의 고독
한창현 모세 신부(성 바오로수도회)

09 그리스도 사상 배움터

근세일본 가톨릭 전래와 전국시대 삼걸(三傑)
이세훈 T. 아퀴나스(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스도교 토착화의 시작
서학의 조선유입에 대한 사정(1)
최영균 시몬 신부

칠극의 조감도를 그리며
권영파 베아트리체(해미국제성지 신앙문화원)

25 다은학당 겨울학기강좌 후기

토착화의 관점에서 신학사 읽기
최영균 시몬 신부

33 칼럼

미래세대의 '같음'과 '다름', 그리고 교회의 미래
변미리(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본부장, 사회학)

상선약수(上善若水), 그래서 마침내 참입니다
오수록 프란치스코 수사(시인, 작은 형제회)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윌리엄 손더스 신부(버지니아 주 노틀담 연구소)

44 도움의 손길

49 다은 갤러리

52 연구소 소식

64 다은 카페

죽 쒀서 남 주는 사랑

최영균 시몬
한국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소장

신자들의 눈에 사제는 혼자 살기에. 사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거나,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생각으로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상태를 묻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몇몇은 먹을거리를 사다 주는 사람들도 있다. 사제가 아픈 사실에 연민을 느낀 신자들이 준비하는 음식은 통상 '죽'이다. 얼마 전에 잇몸이 안 좋아 수술했었다. 작은 연구소에는 소문의 발이 빠르게 멀리 간다. 내가 복이 많은 건지 두 분이 각각 죽을 사다 주셨다. 사제관 문고리에 죽이 담긴 가방이 하나 걸려 있었다. 바닥에도 또 하나의 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몇 끼는 먹을 수 있어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다. 저녁으로 죽 한 그릇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도 먹었다. 그런데도 두 번은 족히 먹을 양이 남았다. 마침 그날 오전 미사를 하고 몇몇 사람들이 점심때까지 남아 있었다. 딱히 밖으로 나가 먹을 것도 생각 안 나고, 사제관 냉장고에 있는 죽이 생각났다. 죽의 양이 모자랄 것 같았지만 물을 더 붓고 끓였더니 멀건 죽이 되었다. 죽 속에 내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생각 끝에 달걀 한 개를 풀어 넣었더니 훨씬 되 졌고, 맛도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다. 얼굴이 비칠 정도로 멀건 죽을 생각하며, 고대부터 사찰에서 먹었다는 '천장 죽'이 생각났다. 불교 교리서 '운수 일기'(雲水日記)에도 나오는데, 천장 죽은 주로 일본 불교계에서 승려들이 먹는 음식이었다. 아침저녁으로 먹는 천장 죽은 쌀을 거의 넣지 않고 끓여, 나누어 먹는다. 쌀알을 찾으려고 밥통을 들여다보면 죽에 천장이 비친다고 하여 천장 죽이다. 혹은 죽에 눈동자가 비친다고 하여 '눈동자 죽'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수행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감사하고 금욕적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승려들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죽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물만 부으면 제한 없이 사람들의 배를 채운다. 죽은 그 그릇을 잡은 사람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그릇 안에 비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죽의 마음은 어질고 넉넉하다. 그렇담 죽이나 빵과 같은 물질이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4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룬 오병이어의 기적이야기를 묵상해보았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물화(物化)된 결과가 빵이나 죽이 아닐까? 우리 또한 팍팍한 인생살이에서 각자의 사랑을 한데 모아 함께 나눈다면, 죽은 사랑이고 죽의 변신은 무죄라 말할 수 있다. 뿌리내림

미디어 시대의 고독

한창현 모세
성바오로수도회

2024년 2월 2일 축성생활의 날을 맞아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의장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는 축성생활자(이하 수도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문에는 시노달리타스의 실천과 관련하여 수도자들이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수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시노드와 시노달리타스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친교의 모습을 통해 복음 선교로 이어지고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 수도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당부의 말로 담화문은 마무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자들의 현실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은 수도자 중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 수도회를 떠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수도회에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고 수도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시노드, 시노달리타스를 외치지만 그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상호 존중이 없어서 함께 사는 형제·자매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고 많이 떠나기까지 합니다. 또 상호 존중이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공동체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분열되고 상호 존중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석은 비단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으로 공동체를 떠나는 현상은 수도회가 아니어도 본당이나 교회 관련 공동체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앞에 선 구성원들을 위해 공동체는 그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메마른 공동체에서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수도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더불어 미디어 사용이 개인화되면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취향에 따라 소비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숏폼’이라는 짧은 형태의 영상물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수동적인 뇌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숏폼’ 영상 자체는 짧은 순간에 매우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쉴새 없이 움직이는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

꽃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때 '불멍'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꽃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숏폼 영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성 안에서 온종일 피곤한 일상을 보낸 현대인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머물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60년에 TV의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용어가 유행하였습니다. 밖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기 보다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안에 틀어박혀 소파(카우치)에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며 뒹굴뒹굴 TV를 즐기는 생활 습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수도회의 경우는 공동체 공간에서 TV를 시청하기 때문에 TV의 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회 내에서 개인 미디어 기기의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 폰의 등장 이전에서부터, 노트북이나 테블릿 등 개인 미디어 기기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각자의 방에서 혼자 콘텐츠를 이용하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수동적인 상태가 주는 편안함을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멍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는 시간 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개인적인 공간에서 숏폼과 같은 콘텐츠를 혼자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신앙의 차원에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식하지 못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 미디어 사용은 고독이라는 신앙의 수행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의 박재찬 신부는 '주님, 당신 품 안에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참된 고독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선 박재찬 신부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홀로 있지 못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듣고 보고자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작은 상처에도 쉽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과 주어진 상황들을 저주하거나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외로움의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박재찬 신부는 우리에게는 참된 고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상과의 단절이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영적 도구로서 고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재찬 신부는 이를 위해 TV나 모니터, 휴대폰 보기를 멈추고 홀로 고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수도생활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생활 전통 안에서 개인적인 공간은 철저한 영적 투쟁의 장소입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성찰의 장소입니다. 정주 수도회의 독방은 물론이고 활동 수도회의 사도직 장소도 결국에는 하느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적 메마름이 영적 어둔 밤의 체험으로 이어지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의 가난함을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도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개인적인 공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장 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디어와 콘텐츠가 주는 위로가 수도자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차지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미디어 이용은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분 곁에 머물수록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고독 속에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스마트폰에게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뿌리내림

일본 교회역사 속 토착화의 成敗

근세일본 가톨릭 전래와 전국시대 삼걸(三傑)

이세훈 T. 아퀴나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근세일본 전국(戦国')시대의 혼란한 난세를 평정하는 과정 속에 등장한 세 사람,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5-1582.6, 48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3-1598.9, 61세),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3.1 1616.6, 73세)를 일본에서는 흔히 전국시대 삼걸(三傑)로 부른다. 공영방송 NHK 주말 대하 드라마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역사소설『대망(大望)』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다. 참고로『대망』은 원래 제목이『도쿠가와 이예야스』로 한국에서는 대망으로 번역된 대하 소설인데, 작자인 야마오카 소하치(山岡"八)는 우익단체 일본회의의 전신, '일본을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고, 자위대 친우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1. 일본 전국시대 3걸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중앙귀족의 대리인으로 지방 영지를 관리하는 슈고다이(守護代) 오다 노부히데(信秀)의 아들로 오와리(尾張)에서 태어나, 17살에 집안을 물려받고 오와리를 거점으로 미노(美濃)를 공략, 영지를 확대해 나갔다. 1586년에는 무로마치 막부의 15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를 앞세워 미야코(都) 교토로 입성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확대한다. 그리고 끝내 요시아키를 몰아내고 무로마치 막부를 무너뜨리고 아즈치(安土) 성에 본거지를 두고 전국시대 통일을 목전에 두었지만, 1582년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의 반란으로 혼노지(本能寺)에서 참살된다. 노부나가는 1543년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화승총과 화약제조기술을 배워 조총부대의 위력을 앞세워 전국시대 통일의 기초를 만들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으로 노부나가 휘하에 속한 병졸 아시가루(足軽) 집안에서 태어났다. 노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노부나가의 유력 무장으로 성장하고, 노부나가가 죽은 후 주변 여러 세력을 제압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도요토미는 오다의 수하로 주군에게 절대 충성했다. 한겨울 주군 오다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만들어서 신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을 정도다. 히데요시는 마침내 1586년 칸파쿠(関白)라는 최고 권력지위를 차지하고, 1591년 혼란한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했다. 1592년에는 조선을 침략하지만 허망한 꿈은 이루지 못하고, 1598년 후시미(伏見) 성에서 사망한다. 히데요시 보다 5살 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와리에 인한 미카와(三河) 마츠다이라 히로타다(松平広忠)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시절을 이마가와(今川)의 인질로 억류생활을 보낸다. 오케하자마(桶狭間)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착실하게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히데요시가 죽은 후 일본역사의 전환점이 된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명실공히 일본을 통일하고, 1604년 쇼군(将軍)의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의 동경인 에도(江戸)에 성을 건설하여 에도 도쿠가와 막부를 열었고, 1616년 은거한 순푸(駿府) 성에서 사망한다.

2. 예수회 및 서양선교사와의 관계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 통일을 위해 서양선교사와 포르투갈 무역상을 통해 입수한 총포로 조총부대를 만들어 압도적 화력으로 전쟁을 수행했고, 그들과의 무역으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 기존 귀족 및 불교세력을 견제했다. 특히 노부나가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협하는 거대 불교세력과의 항쟁을 반복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통사상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갖고 들어온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불교에 대항하는 힘으로 적극 활용할 목적으로 지원했다. 노부나가는 가톨릭 포교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실제로 루이스 프로이스의 서간에 의하면, 노부나가가 불교 천태종의 본산인

히에잔 엔랴쿠지(比叡山 延-i寺)를 완전 초토화시킨 이유도, 불교세력이 소유한 막강한 장원(荘園)의 경제력, 그들의 뒷배가 된 귀족세력, 그리고 승려와 귀족세력이 결탁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가톨릭의 근거지인 유럽국가 및 서양선교사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마도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고 체재가 안정되었다면, 일본내 가톨릭 포교는 매우 우호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는 주군 노부나가를 혼노지(本能寺)에서 참살하고 반역을 도모했지만 실패로 끝난다.

참고로 노부나가의 가신 아케치 미츠히데도 당시 가톨릭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무엇보다 아케치의 셋째 딸 호소가와 가라시아(Gratia)는 세스페데스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일본 가톨릭역사에서 주목받는 비운의 여성이다. 주군인 노부나가의 명으로 당시 유력 다이묘 호소카와 집안의 장자 호소카와 타다오키(細川忠興)와 정략결혼을 했지만, 혼노지의 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역적의 집안으로 몰리게 되어, 가라시아는 유폐를 당하고 이혼에 직면하는 등 불운한 결혼생활을 보낸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톨릭신자로서 자결을 거부하고 적군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호소카와 가라시아의 삶은 엔도 슈삭(遠藤周作)과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 소설의 주제가 되어 한층 일본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여하튼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 혼란한 일본의 천하통일을 위해 가톨릭 전래와 서양선교사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었고, 예수회는 노부나가에게 포교지원을 요청했다. 때문에 미야코 교토와 자신의 영지인 아즈치(安土)에 교회를 건립하고, 세미나리오 등 교육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했다. 다치바나 교우코(立花京子)『노부나가와 십자가』의 설명에 의하면, 오다 노부나가는 일관적으로 그리스탄 보호정책을

실시했고, 1582년 혼노지의 변으로 암살되기 전까지, 교토에서 15번, 아즈치에서 21번, 총 36번이나 예수회 발리냐노 순찰사와 루이스 프로이스를 비롯한 서양선교사들과 만나 교류했다. 또한 노부나가는 자신의 영지와 주변지역의 사찰과 불상 등의 파괴와 소각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신사 및 사찰파괴와 불상 소각 등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암묵적이 승인과 지지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권력자에 의한 종교간 대립은 일본의 신도와 불교와의 대립과 반발을 초래했고, 훗날 거꾸로 가톨릭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격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3. 전국시대 통일과 그리스도교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자신의 전국통일 전략에 이용하기 위해 서양선교사와 우호적인 교류와 관계를 유지했다. 즉 일본은 신국(神国') 이라는 명분 하에 나가사키 26성인의 처형을 명령하는 등 그리스도교에 대해 탄압을 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유럽과의 무역과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1587년 7월 규슈 정벌 후 느닷없이 일본선교의 책임자 코엘료 (Coelho Gaspar) 예수회 신부에게 바테렌(伴天連, 선교사) 추방령을 명령하면서도, 한편 조선침략을 전후해서는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함선과 대포의 제공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히데요시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가톨릭을 박해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그리스탄 영주들에 대한 경계와 영주민의 강제적인 개종, 신사와 사찰파괴를 비롯한 불교와 신도에 대한 탄압, 포르투갈 상인에 의한 일본인 노예매매, 등이다. 특히 당시 일본 선교책임자인 코엘료는 예수회의 방침에 어긋나게 히데요시의 규슈 정벌과 조선출병의 군사적 지원, 대포와 함선제공을 약속하고, 필리핀 함대를 파견하여 그리스탄 영주들을 지켜주겠다고 과장하거나, 일본을 개

종시킨 다음 일본인을 첨병으로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군사원조를 실행하겠다는 등 심각한 정치적 문제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한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황폐한 전쟁과 죽음의 혼란 속에서 다도(茶道)에 특별한 애착을 보였고, 센노 리큐(千利休, 1522-1591)는 도요토미의 다도 스승이다. 센노 리큐 주변에는 차를 배우려는 도요토미의 많은 가신들이 모여들었고, 그러한 리큐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총포와 화약 등 전쟁물자 조달은 히데요시의 전국통일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리큐 주변에서 활동한 다도 제자 중에는 다수의 그리스탄 영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곱철인(利休七哲)이라 불리는 다도 제자가 유명한데, 이들 무장(武将)은 가모(蒲生氏郷), 호소카와(細川忠興), 후루다(古田織部), 마키무라(牧村利貞), 다카야마(高山右近), 세다(瀬田掃部), 시바야마(芝山監物)로, 대부분이 그리스탄 영주다. 심지어 센노 리큐 자신도 숨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히데요시는 다카야마 우콘에게 배교를 설득하는 사절로 리큐를 파견하여 권유하지만, 다카야마는 이를 거부하고 그러한 다카야마의 진심을 알아본 리큐도 더 이상 배교를 강권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리큐는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할복 자결로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덴카비토(天下人)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하고 에도막부를 열었다. 이에야스도 초기에는 서양선교사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1610년 예수회와의 소통 통로였던 요한 로드리게스(João Rodrigues, 陸若漢) 신부가 일본에서 추방된 이후 점차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614년 금교령을 내리고 많은 서양선교사, 이루만(수도사)과 도주쿠(전도사), 다카야마 우콘을 비롯한 가톨릭신자를 마카오와 필리핀으로 추방하고, 이후 본격적인 가톨릭 탄압과 박해를 강화해 나간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33년간의 일본생활을 마치고 다른 정치적 이유로 1610년 일본에서 추방되어, 마카오로 건너가 중국대륙을 오가며 23년간 중국선교를 위해 활동하는데, 그 당시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와 예수회 이루만이 된 빈센트 가운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서광계와 연계하여 명나라를 위해 포르투갈 군대와 대포 등을 조달하여 청과의 전쟁을 지원하기도 했고, 명말청초(明末清初) 시기인 1630년에는 산동반도를 거쳐 북경으로 가던 조선사신단 정두원을 등주(登州)에서 만났다. 이 때 로드리게스 신부는 정두원을 통해 서양천문, 화포, 마태오 리치의 서책, 지도 및 직방외기 등을 조선국왕 인조에 보냈다고 기록하고있다. 동아시아 3국 관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Café의 글을 참조 바란다. https://cafe.naver.com/nagasakidiary (이상). 뿌리내림

그리스도교 토착화의 시작
서학의 조선유입에 대한 사정(1)

최영균 시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저희들은 아주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책을 통하여 거룩한 교리를 배움으로써…."[1] 1811년 조선신자들이 교황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문서를 통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비대면적 방법이긴 하지만 문자를 통해 예수회 적응주의 선교의 지적 신앙적 자원이 조선에도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문서란 예수회의 동아시아학 내지 천학을 일컫는다. 결국 예수회원들이 중국에서 쓴 책(서학서)은 조선 천주교회의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 유학자들은 사신 자격으로 자금성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조공 등의 업무 후에 북경의 4대 천주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양인들을 만났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출신 성분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조선 유학자들을 만난 일은 선교활동의 본질적 요소였지만,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영역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조선 초기근대의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파장을 남겼다는 것을 이 호기심 어린 조선의 유학 엘리트 관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공교육에서 접하는 분과학문인 수학, 지구과학, 물리학, 건축학, 역사, 약학, 천제물리학, 항공학, 과학 등의 명칭은 동아시아의 서학에서 유래하여 정형화 표준화된 것들이다.[2]

조선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른 국가와 달리 선교사없이 서학서이라는 문헌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신앙이 포함된 조선과 서구지식의 교류는 청과의 엄격한 봉건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서학은 조선의 사대부 문인들이 연행(燕行)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문헌을 들여와 조선의 유학적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재해석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생겨났고, 이와 더불어 민중운동과 신종교도 발생하였다. 서학은 조선 유학자들이 자신의 세계관과 학문을 되돌아보고 지평을 넓힌 도구였다. 그것은 도덕적 완성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할 자연과학 및 기술을 제안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의 전쟁을 겪은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새로운 자극과 자원이 필요했고, 서학은 이에 부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1. 조선으로의 유입된 서학 : 유학 지식체계의 보완으로서 받아들여진 서학

조선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본인은 주변의 조공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년 동아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중해라는 바다와 유럽의 존재를 알게되었다. 17세기 초 이수광이 마태오 리치의『천주실의』와 서양문물을 소개하면서 서학지식이 들어왔을 때 서학은 소수의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역법이나 단편적인 과학기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이후 18세기 중반에 성호 이익에 와서야 서학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

1) 윤민구 역주,『윤유일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 자료집 제4집』, 천주교 수원교구 시복시성 추진위원회, 1999, 185.

2) 배선복, "동서만남의 인문학 장", 배선복 외,『동서 만남의 주어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14.

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학이 천주교라는 신앙적 성격의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예수회의 적응주의 문서선교가 신앙으로 변형되기까지 200년 가까이 걸렸다고 말하면 새삼스럽다.

공식적으로 서학서의 유입은 인조(재위 1623-1649)때 진주사(陳奏使)로 중국에 다년온 정두원에게로 소급된다. 1630년 그는 등주(登州)에서 예수회 선교사 로드리게스(J. Rodriguez, 陸若漢, 1561-1633)를 만나 서학서와 자명종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한다. 천리경, 자명종, 화포, 지도, 천문학서 등이 선물로 조선에 전해졌다. 또한 소현세자가 청의 흠천감에서 아담 샬을 만난 것이 유명하다. 1720년 숙종이 죽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국왕의 죽음을 알리러 청에 가면서 아들인 이기지(李器之, 1690-1722)를 군관으로 동행한다. 이 둘은 흠천감(欽天監)에서 일하던 3명의 예수회원과 대면 교류를 하면서, 이 만남을 면밀하게 기록하였다.[3] 한자라는 동아시아의 보편언어를 통해 이 부자는 유럽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선교를 금지당했지만, 예수회원들은 황실과 흠천감에 남아 지식의 교류활동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예수회는 서양의 지적 자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목을 이끈다는 것을 일본에서부터 터득했고, 중국과 조선 역시 예외적이지 않았다. 조선에서 서학서가 관심을 끌게된 배경에는 이지조의『천학초함』이 있었다. 이 책은 예수회 서학서를 모아 편찬한 총서로서, 종교·윤리적 성격의 리편(理編), 자연과학·기술의 기편(器編)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에는 17세기 후반 무렵 유입되었다. 뿌리내림 (다음 호에 계속)

3) 이기지는『일암일기』(一菴燕記)를 남겼다.

칠극의 조감도를 그리며

권영파 베아트리체
해미국제성지
신앙문화원

여행을 가자는 권유에 남편의 답변이 멋지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없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발로 걸어 다닐 때 보지 못하는 경관을 보여주고,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 여행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는 셈이다. 조감한 영상은 실제로 다녀온 피오르와 걸어서 여기저기 둘러본 로마의 유적지는 조감 된 영상을 통해 더욱 선명하고 짙은 강도의 기억을 심어준다.

이러한 경험을 반추하며 판토하의 신학을 조감하는 작업을 생각해 본다. 역사적 틈새를 메운다는 무모한 희망은 버리고, 기도와 땀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을 수 있는 교량을 만든 선교사들의 삶을 느껴보려는 간절함을 담아 조감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판토하의 삶과 중국 활동 시기가 역사의 어느 좌표에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예수회 중국선교를 개척한 대표 인물 마태오 리치와 주고받은 실랑이를 들어보려 한다. 이러한 조감 노력이 다시 돌아와서 펼쳐 드는 칠극

의 감동을 배가시키기를 희망한다.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디아고 데 판토하

칠극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판토하는 칠극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국내외 연구에서 마태오 리치나 아담 샬 등에 비해 적은 연구물이 이를 반영한다.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원이었다는 지점에서 날개를 펴면, 그 실마리가 가느다란 개울처럼 드러난다.

디에고 데 판토하는 1571년에 당시 스페인 제국의 수도였던 마드리드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 발데모로Valdemoro에서 태어났다. 18세의 판토하가 톨레도에 있는 예수회의 문을 두드린 후, 아시아선교를 지원하는 점에서 당대 유럽의 선교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회 회원들이 공유했던 선교 열기는 당대 주요 수도회의 선교방식과 다른 온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예수회원들의 선교 자세는 선교의 세기로 불리는 15세기의 반성이 빚어낸 산물이다. 유럽 중심의 시각으로 우월한 문화를 이식시킨다는 자세로 전개된 전 세기의 선교는 여러 대륙에서 마찰을 일으켰다. 이러한 자세로 펼친 유럽 선교사들의 만행은 발라돌리드 논쟁(Valladolid Debate, 1550-1551)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디언도 인간인가라는 주제의 논쟁은 엄마 앞에서 아이를 내쳐 죽일 때 엄마가 우는가를 실험했다는 일화에서 당대 유럽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

1554년에 설립된 예수회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선교지로 나아가 선교활동을 펼쳤다. 비교적 후발선교회였던 예수회의 선교는 앞선 착오를 성찰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며, 선교대상지의 분위기를 예민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예수회 회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불협화음의 배경에는 선교방식을 둘러싼 이견만이 아니라 당시 선교영역을 분할받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갈등도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갈등의 씨앗이 중국에서 함께 활동하던 리치와 판토하의 갈등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리치와 함께 한 선교

판토하가 리치를 만난 시기는 대략 1600년 3월 무렵이다. 판토하의 발음을 따서 중국 이름 방적아龐迪我를 지어준 이도 리치였다고 알려진다. 리치를 만난 판토하는 1610년에 리치가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리치의 선교활동에 동행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리치와 다른 판토하의 선교관이 가뜩이나 조심스러웠던 중국 내 선교 분위기에 갈등의 기름을 부었다.

Matteo Ricci (마테오 리치)와 Didace De Pantoja (판토하)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8460#home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다. 지난濟南에서 만난 리치와 판토하는 중국 황제에게 바칠 예물을 들고 베이징으로 이동 중에 선박이 좌초되어 산둥성 린칭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 지역 책임자는 당시 악명 높은 마탕이었다. 어느 날 마탕은 톈진에 갇혀있던 리치 일행의 짐을 뒤져 십자가를 발견했다. 알몸으로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난 예수의 모습을 본 그들은 황제를 저주하는 부적으로 간주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때 판토하는 우리는 예수를 진정한 신이며 구원자라는 엄청난 선언을 했다.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유창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무언가 빌미를 잡으려는 분위기에서 이뤄진 선언에 오싹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눈치 빠른 리치가 이를 수습했다. “이 분은 위대한 성인이시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늘 눈앞에 그림이나 형상을 두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리치와 판토하가 보여준 간격은 중국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선교를 위해 예수가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리치와 판토하의 서로 다른 선교관이 그 뿌리에 있음을 칠극의 여러 구절에서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치는 이러한 판토하에 대한 불만을 여러 곳에서 드러냈다. “디에고 데 판토하 신부는 나쁘게 행동했고, 여러 신학생과 예수회 형제들은 그가 미덕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마태오 리치가 예수회 총장에게 보낸 1606년의 서한)

리치와 판토하의 갈등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감지된다. 혹자는 성격 차이라고 설명한다. 리치는 상남자로서 매우 사교적이고 겸손하며 인내심이 크지만, 판토하는 성급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처럼 외면으로 드러난 활동 양상의 차이도 각자가 설정한 주요 선교 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다른 면을 드러낸다.

판토하가 리치를 만난 시점은 어려움에 부닥쳤던 예수회가 세력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안정된 분위기를 정착해 가던 때였다. 비록 문제를 일으켰지만, 판토하는 리치와 함께 사교적인 선교활동에 동참했다. 판토하는 베이징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매일 같이 황궁에 들어가 현대 피아노의 조상에 해당하는 ‘스피넷’ 연주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그 대상이 상류계층 유학자였다는 점이 판토하의 불편을 키워갔다.

판토하는 베이징 외곽에서 선교활동을 펼쳤고, 장차이를 포함하여 많은 서민이 그와 함께 일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선교활동과 지역 분할이 리치의 선교전략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판토하가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며 선교를 펼친 점과 당대 상류층의 일부다처제를 비판했다는 점은 판토하의 개인적 소신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유학을 바라보는 지점의 차이

하느님을 상제로 번역하여 설명하는 대목은 리치 선교의 대명사로 꼽을 수 있다. 선교사의 새로운 장을 연 리치의 선교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느님의 면모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 유학에 기대어서는 영리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그는 당대 유학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중국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리치의 후계자인 니콜로 롱고바르디도 이러한 리치의 전략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판토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자료를 참고할 때, 처음에 판토하도 상제라는 표현 사용에 찬성했던 듯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판

토하는 신성을 모독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상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드러낸다.

이를 들어 판토하가 유학을 경시하거나 하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도, 판토하가 리치에 비해 더욱 분명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표현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는 있다. “비록 내가 선을 행했더라도 천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능히 할 수가 없다. (중략)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아름다운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하늘의 크신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했다.”, 이 구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아야 진정한 선과 미덕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음성이 리치와 다른 톤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다름이 주는 풍부함을 드러내는 조감

판토하와 리치의 차이를 갈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포르투갈-이탈리아와 스페인 출신 예수회원의 저변에 놓였던 오래된 심리적 저항이 갈등을 증폭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갈등보다 중요한 점은 판토하의 목소리가 담은 색채를 감지하고, 그 렌즈로 칠극을 보는 데 있다. 선교와 중국 내 예수회 상황이 보이는 지점에 서서 조감하는 칠극이 더욱 풍성한 향기를 품어내기를 바란다. 뿌리내림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의 강의를 마치며

토착화의 관점에서 신학사 읽기

최영균 시몬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소장

우리가 한 인물과 사건을 볼 때 각자 다양한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의 관심과 지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과 인물도 제각각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존중하고 배운다는 것은 보다 완전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신학의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의 강의는 토착화, 즉 어떤 맥락과 이유에서 이러 저러한 신학의 사고형태가 출현했는가를 다루는데, 결국 신학은 계시 진리가 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때그때 새롭게 이해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체계, 새로운 사유와 가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경직된 지식체계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양한 시대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의 관점들이 어우러지며 교회의 신앙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사를 보면 늘 현실세계와의 변화와 환경에 맞추어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동적 과정을 읽을 수 있고, 특히 우리 강의는 이 역사 자체를 토착화합니다.

토착화를 단순히 문화적 토양에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토착화가 갖는 진리의 다면성과 역동성을 축소시키는 이미지를 낳습니다. 신학의 전체 역사는 문화와 대화하며, 그리스도교 진리가 갖는 다양성의 보고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유다교에서 시작한 말씀의 육화

예수님은 하느님의 복음을 유다인 세계에 가져왔습니다. 즉 유다교 세계의 사고방식과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역시 유다교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제국 전체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다양한 문화 형태와 생활 형태가 있었던 것 중 매우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그 특수한 문화 형태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잘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씀자체가 처음부터 특수한 세계에서의 토착화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성전중심의 유다교 문화는 각 지역의 획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문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지역의 회당들 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90년엔 바리사이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이 얌니아에서 회의를 했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과 선을 그으며 그리스도교가 공적으로 세상에 각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뼈속깊이 유다교의 문화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이나 복음의 가르침을 들을 때 다양한 말(단어)을 만납니다. 계약, 율법,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백성, 약속의 성취, 속죄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교의 전통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 출발점에서 '말씀'으로 대변되는 유다교라는 특정 문화 세계에서 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진리의 토착화의 특성은 두 가지 상반되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데, 문화의 적응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첫째, 유다인인 예수와 제자들은 유다교도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딱 들어맞게 말하자면 토착화된 형태로 복음이 처음부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어디서 복음이 전해지든 이 원점에 다가서는 정도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뿌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진정한 진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육화의 원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둘째, 유다인인 예수가 전하고 싶은 말이 당시 유다교라는 종교의 실천을 비판하고 또 이 종교를 파괴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낳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이든, 생활이든 그것들에 대해 반드시 비판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토학화의 정의속에는 반드시 '문화의 변용'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의 기본이론에서는 토착화의 과정을 3단계로서 '적응 - 동화 - 변용'의 단계로 바라봅니다. 토착화가 단순히 기존의 문화와 합체되어 버리는 안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은 반드시 비판적 작용을 가져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다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렇게 보면 토착화는 반드시 그리스도교적 문화의 창조와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헬레니즘 세계와의 만남

그리스도교가 그 출발점에서 철저한 토착화였던 것처럼 그 역사적 전개 역시 일관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결정적인 패러다임 내지 시기를 회고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이른바 헬레니즘화, 더 연장해서 말하면 유럽화의 시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처음 수십년 사이에 유대 문화의 종교에서 로마 제국, 즉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한 로마 종교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긴 시계열(Time serial)로 보면, 바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민족이동이 있어 중앙유럽의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중세를 통틀어 유럽 그리스도교 문화가 형성되어 간 셈입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연속적인

Deësis mosaic, The Hagia Sophia mosque, Istanbul

흐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웅장한 인칼쳐레이션(복음의 문화내 개화)의 프로세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리스도교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은 이 유럽형으로 유대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신학도 미술도 법도 교리도 조직도 모두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 완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설교

복음이 그리스 문화와 만나 새로운 교회문화가 출현한 사례를 우리는 사도 바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른바 사도들의 선교 설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장과 17장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인데, 이것은 성령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유다인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 여러 성경의 다른 인용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요엘3장, 시편16, 110편 등을 인용하여, 예수야말로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서 '너희가 이 메시아를 죽여 버렸다', '하느님께서 그를 되살리셨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부어 내리셨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아테네에서 그리스인들에게 선교를 시도한 바오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로 종말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식으로, 유대땅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려고 합니더. 그러나 바오로는 유대교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교적 사항에 관해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인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메시아)라는 말조차 이 설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헬레니즘 세계에서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보았다면서, 그 종교성에 준거하여, 참된 하느님은 그런 그리스 신전의 제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의 제우스 찬가를 긍정적으로 인용하면서, 얼마나 신이 사람과 가까운 분인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배경에 포함된 유다문화의 용어나 지식 등은 최대한 피하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이나 언어법으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같은 사도행전의 선교 장면이면서도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의 아테네 설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이 정말 바오로의 설교인지 루카가 만든 것인지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부들의 토착화 노력

유다교에서 탈피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의 사고방식과 언어에 따라 재해석됩니다. 이미 2세기 중반『호교론』을 쓴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그리스도 이해의 열쇠로 삼았습니다. 이 스토아적 로고스 개념은 이후 4~5세기, 즉 니케아 공의회에서 칼케돈 공회의에 이르는 그리스도론의 교리 결정 과정의 출발점이자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습니다. 교부들이 유대적인 초기 신앙을 어떻게 자신들이 입은 문화의 옷으로 입혔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 교부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보면, 그 요점들이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종종 '속죄'라는 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강생구속을 주로 플라톤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신이 인간화와 인간의 신화라는 순환적 이해를 낳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을, '神化'(테오시스)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됩니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인 이데아와 합일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는 플라톤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강생구속의 목적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신에게 올라가는 신의 '교육'(파이디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한 목적이 됩니다. 교부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리스 철학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에게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진리인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철학자요, 인도자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인도자요, 철학자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교회 맥락에서

교리의 역사를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없지만, 9세기 프랑크의 왕인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대제가 가톨릭교회를 제국의 통치 이념이자 사회제도의 원리로 도입하면서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종교와 세속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없이, 신정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교회는 성장했지만,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갈등과 마찰 역시 존재했습니다. 수도원과 세속 군주들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아랍세계를 통해 들여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신학의 새로운 이해를 촉발했습니다. 이것을 스콜라철학 혹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현실 세속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세속 사회를 지배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신학적 가치부여가 필요해졌습니다.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백과사전적 철학으로 철학, 법, 윤리, 과학에 이르는 모든 지식을 신학적으로 변용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은 플라톤보다 훨씬 복잡하게 분류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도 교회를 통한 은총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적 이성으로도 하느님께 이를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콜라적 유산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나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의 뿌리가 되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유대교적, 혹은 성경적 그리스도교 이해와 이후 시대의 신앙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신앙 그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해석과 이해가 새로워졌다고 표현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출발점에서 유대교적이었던 그리스도 신앙은 우선 헬레니즘, 나아가 유럽의 변화하는 환경과 문화에 완전히 토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아시아와 한국

16세기 이후 이른바 대항해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더 넓은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럽적 그리스도교는 세계적 그리스도교로 분명 토착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적 문화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교가 다른 문화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만큼 역동적이고 크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전례문제, 유교, 불교와의 적응주의 신학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었습니다만,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근대에 그리스도교 문화는 유럽문화를 풍요롭게 일으킨 것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아시아는 유럽 그리스도교 문화와의 만남에서 문화에 대한 지배, 혹은 압박이라는 부정적 경험이 컸습니다. 물론 아시아도 워낙 넓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순 없겠지만,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복음의 토착화 과정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아직 복음이 아시아의 문화와 민족들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문화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내림

미래세대의 '같음'과 '다름', 그리고 교회의 미래

변미리
서울연구원 포용 도시 연구본부장, 사회학

한국의 수도 서울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던 힘 있는 행위 주체로서의 서울의 역할이 약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실천 중이다.

사실 현재 서울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불확실성의 증대'와 '복잡성의 증가'라는 도시를 둘러싼 공통의 환경 변화 가운데, '늙어가는 도시'와 '혼자 살아가는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은 고군분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중심 세대라고 할 새천년 세대인 '미래세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처럼 '대신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그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도대체 젊은 세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야?', '미래세대로서 젊은이들이란 원래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나이 들면 기성세대와 같아질 텐데 뭘 걱정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 필자는 서울 미래세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미래세대의 가치와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서울의 미래세대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가치체계는 이런 것들이다.

'탈 가족 지향'과 '성역할의 변화'이다. 미래세대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거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미래세대들은 '경쟁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사회는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하고 있으며(동의율 70%),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라는 의견에도 과반이 넘는 56%가 동의하고 있었다. 서울의 경제적 양극화 정도는 심각하며(89%),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공평하지 않으며, 이 현상이 앞으로 30년 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지만, 그들 세대 내부에서 차이를 보이는 생각들은 없을까? 필자는 미래세대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분석을 통해 서울의 미래세대가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기존 가치 지향의 밀레니얼 그룹', '탈 가족 지향의 사회부족 그룹', '분자화되고 순응적인 강제된 약자그룹'이라고 필자는 각 그룹을 명명하였는데, 이들 집단이 가진 세부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밀레니얼 그룹'을 형성하는 미래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이며, 기혼자가 많고, 남성들이 중심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사회 부족 그룹'은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이며, 미혼자들이 많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강제된 약자그룹'은 저소득계층이며, 1인 가구가 많고 정치적으로는 중도적인 입장이 많다.

이들 세 그룹은 각각 어떤 가치들은 갖고 있을까?

'밀레니얼 그룹'은 적극적인 온라인 참여를 통해 내 집단의 이해를 위한 의사표명을 하고 경쟁주의적 가치와 디지털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신뢰한다. 이들은 가족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부족그룹'은 탈 가족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1%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유경제, 착한소비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디지털 기술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 현상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그룹은 남녀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강제된 약자그룹'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이지 않으며, 경제적 문제가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나와 별 관계가 없고 친환경 기업 소비는 도덕이나 규범이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때로는 공통된 생각을 갖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도시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미래세대는 향후 교회의 주축이 될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고, 종교에 관한 관심도 약화하여 가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기반해서 미래세대들을 교회 공동체로 '되돌아오게' 혹은 '돌아오게' 하는 도전이 교회 앞에 놓여 있다. 뿌리내림

– 이 글은 변미리, 동아일보,
2022년 9월 28일 자 '3가지 목소리 미래세대의 공존법' 기고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상선약수(上善若水), 그래서 마침내 참입니다

오수록 프란치스코
시인, 작은 형제회

수도생활을 시작할 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사람을 일컬어 물 같은 사람,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했습니다.

"가장 선(善)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사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뭇사람들이 싫어 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기에 도(道)에 가깝다. 사는 데는 땅이 좋다. 마음은 깊은 것이 좋다. 벗을 사귀는 데는 어진 것이 좋다. 말은 진실한 것이 좋다. 정치는 자연의 도리로써 다스리는 것이 좋다. 일은 잘 할 줄 아는 것이 좋다. 움직임은 때를 맞추는 것이 좋다. 오로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도덕경 8장)."

물은 누구와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큰 바위를 마주하면 낮은 곳으로 스미고, 웅덩이를 만나면 쉬어가고, 절벽을 만

나면 뛰어내립니다.

물은 자기 얼굴을 갖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대로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 대로 처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시냇물로 불렸다가, 강물로 불렸다가, 바다에 다다르면 바닷물로 불립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고 바뀌어도 물의 본성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물로 존재합니다.

물은 자기 없음으로 생명을 키웁니다. 스미고 흘러서 풀뿌리를 적시고 나무의 수액이 되어 성장을 돕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온갖 꽃들의 그윽한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빛깔이 되기도 합니다. 물은 과일나무를 만나면 단맛을 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생성됩니다. 물은 이처럼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기를 앞세우거나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노자『도덕경』주석가 중의 한 사람인 왕필은 "도무유수(道無有水) 고왈기야(故曰幾也)"라 하였으니, '형상이 없는[無相] 도(道)가 형상이 있는[有相] 물[水]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은 사람처럼 '너니 나니'하는 아상(我相)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본선(本善)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자리를 피하여 아래로 흐르니 거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땅[善地]입니다.

물은 텅 비어 고요하고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못[善淵]입니다. 물은 사물[物]을 살리고 성장시키지만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랑[善仁]입니다. 물이 안으로 사물의 모습을 비추고 형체를 비춤에 있어, 물은 사물의 있는 그래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선한 미쁨[善信]입니다. 물은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다스림[善治]입니다. 물이 사물(物)을 만나면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善能]입니다. 물은 봄에는 풀리고 겨울에는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선한 때(善時)입니다. 물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그 사물이 사물답게 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위자연(無爲自然)입니다.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의식도 없이 흔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없는 함'입니다. 마치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잘 산다는 것,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자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물 흐름같이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뿌리내림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윌리엄 손더스 신부
버지니아 주 노틀담 연구소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참회 기간이기 때문에 본시오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서 그리스도의 무덤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본당에서 하는 대중적인 신심이다. 이 십자가의 길은 16세기에 공식적으로 "Via Dolorosa"(슬픔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로 명명되었다.

이 기도의 봉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다. 전통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매일 주님의 수난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기독교를 합법화한 후 이 십자가의 길에 중요한 각 처가 표시되었다. 생애 말년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성 제롬(342-420)은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성지를 방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음을 증언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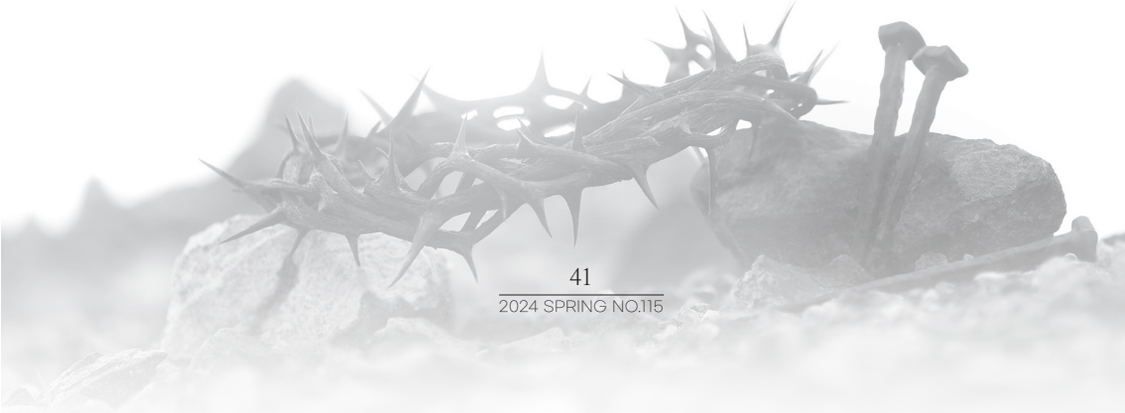
반면, 다양한 종교적 관습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 "Peregrination ad loca sancta"(380)의 저자 성녀 실비아는 저서에서 각 처를 따르기 위한 특정 관습이나 기도문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이 순례자들이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봉헌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고, 5세기 교회에서는 실제로 성지로 여행할 수 없는 순례자들이 마음속으로 경건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성지에서도 "재현"하려는 관심이 커졌다. 예를 들어, 볼로냐의 주교인 성 페트로니우스(St. Petronius)는 성 스테파노 수도원에 여러 개의 처를 포함하여 성지에서 더 중요한 성지를 묘사한 경당을 마련했다.

1342년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성지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음 장소들에서 곧, 빌라도의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만난 곳, 그곳에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곳, 키레네의 시몬을 만난 곳,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벗기던 곳,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십자가와 그의 무덤에서 기도하면 면죄부를 받았다.

'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 순례자인 윌리엄 웨이(William Wey)는 1462년에 성지를 방문하면서 부터이다. 그는 순례자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방식을 취하고자 묘사했다. 그 이전에는 그 길은 대개 오늘날 우리의 길과 반대 방향, 즉 골고타산에서 빌라도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랐다. 그러나 이때부터 빌라도의 집에서 골고타로 가는 반대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슬람교도 투르크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했을 때, 코르도바의 도미니코 수도원과 메시나의 가난한 클라라 수녀원(1400년대 초)을 포함한 인기 있는 영적 중심지에서 각 처의 재현작품이 세워졌다. (Nuremberg 1468; Louvain 1505; Bamberg, Fribourg, Rhodes (1507); Antwerp 1520). 이 각 처 중 다수는 유명한 예술가에 의해 재현되었으며 오늘날 걸작으로 간주된다. 1587년까지 이슬람교도들이 누구든지 각 처



에 멈추거나,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각 처에 경배를 드리는 것,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성지에서의 기도 봉헌을 억압했다고 Zuallardo는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봉헌은 유럽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다.

이 때 처의 수는 다양했다. 윌리엄 웨이는 총 14처로 하였지만 현재의 것의 5개만 해당된다. 그 내용에에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헤로데 앞에 서시다〉과 〈바리사이 시몬의 집(루카7장)〉이 포함되어 있다. 1584년에 Adrichomius가 쓴 예루살렘 "sicut Christi Tempore floruit"라는 책에는 현재 버전과 일치하는 12개의 처가 나와 있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배포되었다. 16세기에는 특히 북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신앙서적들이 등장했는데, 각처마다 기도문이 담긴 14개의 처가 있었다.

17세기 말에는 교회에 각 처들을 세우는 일이 더욱 대중화되었다. 1686년 교황 인노센트 11세는 이슬람교의 탄압으로 인해 성지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교회에 14처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프란체스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실제 순례하듯이 신심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1726년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면죄부를 확대했다.

5년 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모든 교회에 14처 설립을 허용하고 그 수를 14로 고정했다. 1742년에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모든 사제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각 처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함께 십자가의 길 14처로 풍성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 신심의 인기는 이탈리아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 카사노바(1676-1751)와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도 고무되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전역에 600개 이상의 14처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십자가의 길의 전통적인 14개의 처는 다음과 같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3처 (첫번째)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제5처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제7처 (두번째)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9처 (세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때문에, 몇몇 묵상 소책자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제15처가 포함되어 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경건하게 실천하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세워진 곳의 각 처에서 이동하는 이들에게는 전대사가 주어진다("대사의 풍성함", 63항).

피치못할 상황으로 교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30분 동안 경건하게 읽고 묵상함으로써 동일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서 〈십자가의 길〉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1975년에 복음에 기초한 〈십자가의 길〉을 승인한 교황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작성된 것에 의해 입증되었다. 뿌리내림

출처 EWTN.COM; Catholic Herald 1994년 3월 10일호 기사

도움의 손길

2024. 1. 1 ~ 2. 29

:: 후원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 국민 : 819-01-0122-995
- 농협 : 207170-51-024262

(후원자분을 위해 매주 화, 목, 주일 미사봉헌해드립니다.)

후원금을 봉헌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신임 아녜스, 강연희, 강지연 바울라, 강향식 비비안나, 견복순 M.막달레나, 고순옥 율리아나, 고재영, 공갑순 효주아녜스, 공미희 크리스티나, 공연홍 헬레나, 공은경 세실리아, 권수경 베로니카, 권숙희, 권순단, 권승순 데레사, 권용환 엘리사벳, 권재호(권재훈), 기연신, 김경보 웬델리노, 김경자 아녜스, 김경희 엘리사벳, 김계순 아녜스, 김공수 라우렌시오, 김광주 필립보, 김금자 루시아, 김기숙 도미니카, 김기정 요안나, 김기창 신부, 김도영, 김란수 세실리아, 김말례 논나, 김명순 소화데레사, 김명신 로사리아, 김명자 엘리사벳, 김명현 마리아, 김명희 소피아, 김무활 베드로, 김문자 루치아, 김미경 아가다, 김미선 리디아, 김미영 헬레나, 김미자, 김미자 마리안나, 김미자 아나다시아, 김민양 율리아나, 김민주(김민서), 김민주(김보빈), 김백겸 사도요한, 김부영 마리아, 김상숙, 김상희, 김서원 프란치스코, 김선 마리아, 김선래, 김선명 데레사, 김선희 레지나, 김성미 세실리아, 김성신 크리스티나, 김성진 엘리사벳, 김세중, 김소라 요안나, 김소영 요셉피나, 김수찬, 김숙자 소화데레사, 김순철 안젤라, 김시우 라파엘, 김애경, 김애자 마르티나, 김연, 김연금 안나, 김연옥 카타리나, 김연호 아우구스티노, 김영삼 요셉, 김영선 실비아, 김영신, 김영옥 비아, 김영옥 엘리사벳, 김예순 엘리사벳, 김옥선, 김옥희 브리지다, 김옥희 안나, 김용선 힐라리오, 김우택 스테파노, 김유례, 김윤수, 김윤호 리디아, 김은성 마리아, 김은성 마리아, 김은숙, 김은욱 유스티나, 김은진 아녜스, 김은희 소화데레사, 김이영 릴리아나, 김자연 레지나, 김재선 비시아, 김재숙 엘리사벳, 김재영 요한, 김정기 미카엘, 김정숙 린다, 김정옥, 김정옥 마르타, 김정옥 헬레나, 김정은, 김정호 리드비나, 김종수 요셉, 김종숙 마르타, 김종순, 김준한 프란치스코, 김준희 마틸다, 김중순 안나, 김진 아녜스, 김진 안젤라, 김진석 베드로, 김진원 스테파노, 김진태 마르코, 김차남 레지나, 김찬숙, 김춘명, 김태규, 김태분 마리아, 김태숙 아가다, 김태연 로사, 김현우, 김현진 그라시아, 김형용 분도, 김형회, 김혜란 안젤라, 김혜선 아녜스, 김혜영 말가리다, 김혜진, 김화옥 아가다, 김효숙 루치아, 김효숙 바울라, 김희숙 젬마, 나미경 크리스티나, 나수옥 지따, 나은설 나탈리아, 남궁인 요한, 남수희, 남영희 카타리나, 노영선 라우렌시오, 노월석 데레사, 노인숙, 노진대 세례자요한, 류화수 리베리오, 명안젤라, 문미향 율리아나, 문민경 로사리아, 문상석 요셉, 문승희 리타, 문영숙 엘리사벳, 문혜성, 문희태 요셉피나, 민유기 수산나, 민정애 소피아, 민지영 우술라, 박경숙 데레사, 박경숙 유스티나, 박다희 미카엘라, 박동석, 박마리 마리아, 박명숙, 박명자, 박민선 시모나, 박배선, 박배수 마리아, 박복순 비비아나, 박상향 로사, 박선우 데레사, 박성숙 엘리사벳, 박수연 비비안나, 박순길, 박순옥 사라, 박신영 소피아, 박애경 알비나, 박연숙 율리아, 박연우 이냐시오, 박영모, 박영호 요셉, 박영화 글라라, 박은경 가타리나, 박은애 베로니카, 박인규, 박정규 사비노, 박정은 데레사, 박정필, 박정필 마리아, 박지원 플로라, 박지현 글라라, 박지훈 바오로, 박혜린(정소옥 수산나), 박혜자, 방희숙 로사, 배상복신부님, 배선필 요한, 배영희(정대희안드레아), 백기현, 백원규, 백인선 젬마, 백정자 비비안나, 범계건영38구역, 범계진흥42구역,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사랑의씨튼수도회, 서복례, 서순덕 말가리다, 서안순, 서윤미 엘리사벳, 서정숙 아녜스, 서정인, 선미영 훈나, 손상기 요셉, 손영숙 크리스티나, 손정혁 요셉, 손행자 카타리나, 손현옥 헬레나, 손희정 마리아, 송경숙 세실리아, 송남숙 카타리나, 송명종 바오로, 송영래 엘리사벳, 송영애 헬레나, 송재성 시몬, 송정완, 송혜경, 신귀원 데레사, 신동욱 레미지오, 신복순 라파엘라, 신숙자 리디아, 신순임, 신정숙 에스텔, 신중태 세례자요한, 신현성, 신현애 글라라, 신효주, 신희철, 심상원, 심수자 데레사, 심윤정 루시아, 심재훈 베드로, 안관훈 알로이시오, 안문숙, 안수진, 안시현 아나스타시아, 안영애 실비아, 안인숙 카타리나, 안현숙 (정승조), 안혜신 라파엘라, 양귀남, 양명석 스테파노, 양자희, 양정화 베로니카, 양현서 빈첸시오, 엄기준 프란치스코, 엄영주 데레사, 여경연 아녜스, 연영순, 오근순, 오문자 소피아, 오문자 아녜스, 오수영 알베르토, 오인순 수산나, 오주영 바오로, 오준희 크리스티나, 오지은 아녜스, 오현미 요안나, 오현자, 오혜승 아녜스, 오혜원, 원수명 글라라, 원은숙 루치아, 원종훈, 원화선, 유기성(정유정), 유명희 아녜스, 유미라 유스티나, 유상수 로마노, 유석정 로사, 유창영 다니엘, 유태석 미카엘, 윤길운 사비나, 윤선애 안나, 윤수정 아녜스, 윤옥희,

윤인숙 밀드지타, 윤현묵 미카엘, 윤혜진 젬마, 이강이, 이경순, 이경자 비비안나,
이경자 젬마, 이경희, 이관애 아가다, 이규영 프란치스코, 이근현 마리아, 이금향 요안나,
이기연 요셉피나, 이기찬 요한, 이남규 아우구스티노, 이낭자 마리아, 이만수,
이명자 글라라, 이명희 로사, 이명희 미카엘라, 이미선 안젤라메리치, 이미순 마리스텔라,
이미순 막달레나, 이미희 사비나, 이민국, 이민규, 이범재, 이병준 라파엘, 이보라,
이봉숙 마리아, 이부희, 이서원 루시아, 이석기, 이선미, 이선이, 이성인, 이솔 헬레나,
이수현 아가다, 이순구, 이순애 루치아, 이순예, 이순자 엘리사벳, 이순정 사비나, 이순주,
이승수 프란치스코, 이승원 요안나, 이승주 레지나, 이애경, 이양순 안나, 이언영 헬레나,
이영란 비비안나, 이영만 미카엘, 이영미 글라라, 이영선, 이영숙 안젤라, 이영신,
이영신 아가타, 이영옥 골롬바, 이영일 헬레나, 이영자, 이영화 미카엘라, 이영희 소화데레사,
이예리, 이예복, 이옥희 아녜스, 이완숙 아가다, 이용선, 이용선, 이원미 실비아,
이원미 실비아, 이윤수 디오니시오, 이윤희, 이은 세실리아, 이은경, 이은경 베르릴리아,
이은경 효임골롬바, 이은숙 젬마, 이은순 비안나, 이은신 노엘라, 이은영 베로니카,
이은정 안나, 이은주 요셉피나, 이은희 마르티나, 이인영 소화데레사, 이인자 로사,
이인형, 이재영, 이재영 요셉피나, 이재희 카타리나, 이정민 아녜스, 이정숙 아녜스,
이정옥 발비나, 이정은 마리아, 이정은 안나, 이정자 카타리나, 이정하 파라, 이정훈 안젤라,
이종명 그레고리오, 이종빈 체칠리아, 이종숙 제노베파, 이준재, 이지란 노엘라, 이진미,
이진호 미카엘, 이찬상 베다, 이춘애 젬마, 이필영 베네딕다, 이헌상 바오로, 이현숙,
이현옥 안젤라, 이혜경, 이혜조 엘리사벳, 이혜진 아가다, 이화주, 이황규, 이희정 아녜스,
임 아녜스, 임경은 아녜스, 임기식 베드로, 임미영 비비안나, 임소연 아녜스,
임윤정 요셉피나, 임정은(박연성), 임해숙 라파엘라, 임희정 루치아, 장경희 세실리아,
장광미 가브리엘라, 장복선, 장수희 안젤라, 장옥희 스테파니아, 장유 스테파노 신부,
장은실 벨라뎃다, 장재연 데레사, 장재용 요셉, 장재호 그레고리오, 장진국 루수,
장현수 가브리엘라, 전경순 프란치스카, 전계성 알렉산델, 전금순, 전민경 크리스티나,
전병문 바오로, 전병일 베드로, 전상근 토마스아퀴나스, 전수아 엘리사벳, 전안나 안나,
전영순 아녜스, 전창남, 전혜린(휴멘), 정경숙 프란치스카, 정다영 라우렌시아,
정미숙 세실리아, 정선자 라파엘라, 정성일 요셉피나, 정수연 세실리아, 정수영 헬레나,
정숙자 크리스티나, 정승희 아녜스, 정영희 아멜리아, 정옥금 글라라, 정원숙 스텔라,
정인석, 정지윤, 정필자 요셉피나, 정현섭 유스티노, 정현애, 정현옥(노정민), 정혜경 모니카,

정혜경 아가다, 정혜선 율리아나, 제은경 바울리나, 조경선 안젤라, 조금현 막달레나,
조동식 구네군다, 조동환 마티아, 조말자(조양자), 조병규, 조병우 요셉, 조성제, 조세연 안나,
조용숙, 조은희 플로라, 조인숙, 조정숙 막달레나, 조진희 마르첼리나, 조철우 바오로,
조춘자, 조혜경, 조효연 요안나, 조희자 안나, 주순분 사비나, 주종수 토마스, 주호경 로사,
지금숙, 지미경 데레사, 지서은 아녜스, 진계영, 차윤정, 천세영 신부, 천은서 아나스타샤,
천주의섭리수녀회, 최경옥 프란치스카, 최경자 데레사, 최길순 안나, 최명숙, 최명옥 마르타,
최명주 마리아, 최명희 안나, 최미숙 율리아나, 최성신 실비아, 최성자 데레사,
최수용 베네딕토, 최영섭 아드리아나, 최영화 스테파노, 최원일 안드레아, 최원자, 최원홍,
최윤실 모니카, 최은미 세실리아, 최이재 모니카, 최정아 크리스티나, 최정애 가밀라,
최정재 율리아나, 최준영, 최중설, 최지민, 최찬 아오스딩, 최현순 헬리나, 최형선(전순미 안나),
최홍자 아녜스, 최화자 마리아, 추경태 도미니코 신부, 추민호 마태오, 하경화 카타리나,
하명옥, 한경애 데레사, 한금정 젬마, 한명흠 아녜스, 한명희, 한봉희 아가다, 한선희 안나,
한성연, 한수정 율리아나, 한영미 미쉘, 한영민, 한영숙(서승미), 한은비, 한인애 로사,
함문숙 엘리사벳, 허경일 로사, 허승회 안토니오, 허융자 헬레나, 홍미경 헬레나, 홍봉균,
홍성란 안젤라, 홍성영 야고보, 홍성환 안드레아, 홍승순 루피나, 홍여옥 스테파니아,
홍은실 엘리사벳, 홍정수 율리아나, 홍정은, 황경희 사비나, 황기분 수산나, 황옥이 레아,
황인영 로사리아, 황정예 스텔라, 황혜진 제노비아

사단법인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Korea Christian Thought Institute

후원금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출금계좌예금주 성명/세례명	(축일 월 일)	예금주 주민번호 (사업자는 등록번호)	(사업장명:)
예금주 주소			
예금주 연락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출 금 일	매월 일
후원 기간	년 월 ~ 년 월	후원 금액	매월 일
신청인명		신청인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수집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보유기간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설 명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상기 청구기관(이용기관)**
제공항목	[필수]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제공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제공, 자동이체 출금동의 확인, 자동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보유기간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까지 (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관)**
설 명	신청인은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니 올바른 연락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인 또는 서명

빈 무덤

34x45.5cm,egg tempera on board, 2019, 이정은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마태28,5-6)

성 요셉의 꿈

Philippe de Champaigne,
'The Dream of Saint Joseph', 1642-3, UK

마태오복음서 1-2장에 나오는 성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4차례를 통해 천사로 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 받게 된다. 성 가정화 특징인 예수님 중심과 다르게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요셉성인이다. 목수인 요셉은 자신의 생계 도구와 신발을 벗은 채 기대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가 입고 있는 히마티온(himation, 겉옷)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희망과 권위와 풍요로움,지적 능력 등을 상징하면서도 위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서 안에서 요셉의 말은 들을 수 없다. 다만 순종과 실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요셉 성인은 필요한 침묵을 가꿀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움 역시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도움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했지만, 하느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힘이 어두운 상황에 빛을 가져옵니다."

"요셉은 기도하고, 일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위한 세 가지 유익한 요소입니다. …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인생의 시련에 맞서는 데 필요한 것을 항상 받았습니다."

출처 Pope at Audience: St Joseph 'a dreamer able to discern God's voice' Jan 26th 2022

글 이정은 마리아

연구소 소식

2024. 1. 1 ~ 2. 29

철학자 카스퍼 Bernhard Casper는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나 자신으로 만나고, 마찬가지로 너는 나를 너 자신으로 만난다.” 만남은 인간 삶의 본질 중 하나이다. 만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확장시킨다. 나와 마주하는 ‘너’가 있기에 ‘나’라는 말의 의미가 가능해진다. ‘너’를 고백하고 ‘너’와 함께 일할 때 ‘나’라는 말도 호칭되고, ‘나’라는 한 주체가 세상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세상 사람 아무도 없이 홀로 산다면 ‘나’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나’라는 의미성을 세상 안에서 갖지 못할 것이다.

– 최영균 시몬 소장신부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겨울학기 개강 –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 (1.9)

학술운영회 회의 (1.11)

연구소 총회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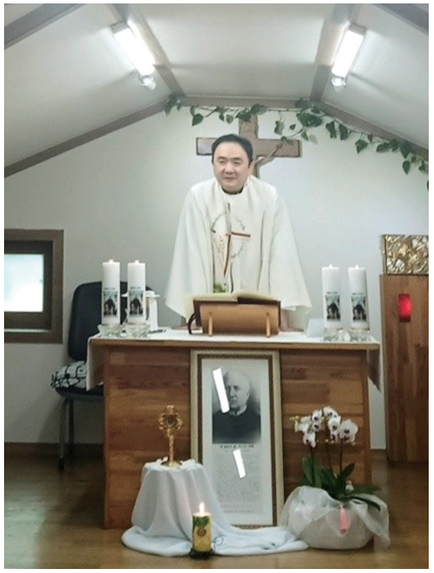
주님 봉헌 축일 (초 축성)

설 미사 (2.10)

재의 수요일 (2.14)

뿌리내림 겨울호를 우편작업하는 편집부원들

연구소 이웃집인 세례자요한수녀원 창립자이신 성 알폰소 마리아 푸스코 신부님의 축일 미사



세례자요한 수녀원 창립자 축일미사 집전

칠보성당 봉사자들과 1박2일 통영으로 워크샵

신자들을 위해 정성껏 커피 내리는 신부님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반가운 후원가족분들

연구소 식구가 된 야생고양이

청소봉사–멋진 칠보성당 형제님들

청소봉사– 천사같은 미소 모현자매님들

주일미사후 소장신부님이 직접 끓여주신 장칼국수

연구소에서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례부, 교육부, 홍보부, 후원부, 까페 봉사,
웹 디자인, 교정교열, 외국어 봉사자, 성화 작가

시간과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해주실분은 연락 바랍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연구소 총무 : 장 가브리엘라 010–5391–0229

칠보성당에서 연구소까지

연구소 봉사자 **칠보성당 홍성영 야고보**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는 칠보산 자락 아래 신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칠보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에 2013년 6월 제6대 최영균 시몬 신부님께서 부임하여 오신 이후 칠보 본당에는 여러 가지 따듯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부님을 중심으로 전 신자가 하나 되어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직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마음, 온 힘, 온 영혼을 다해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려 노력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의 노력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초등부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주 구역 미사를 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영성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순교자 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인 〈요한 대학〉을 개설하여 소외된 계층과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취미생활과 야외행사인 소풍과 성지순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었고 더불어 성당 소식지 역할을 하는 월보인 〈겨자씨〉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칠보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여러 가지 뜻을 이루시려 애쓰시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 신부님께서는 2017년 12월에 호계동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떠나시게 되었고 함께 봉사했던 상임위원들과는 그 이후로도 지금에까지 인연의 끈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에 지금의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셨

연구소 주차라인 작업

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간 연구소는 한참을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듯 암울한 환경이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 신부님과 함께했던 당시의 상임위원들과 의논 끝에 매월 셋째 주, 주일 미사 후 연구소의 청소 봉사로 적으나마 최 신부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으로 시작한 청소 봉사이며 봉사가 끝나면 1층 카페에서 신부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중순 연구소 형제회 워크샵으로 떠난 1박 2일 통영으로의 여행길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구례 사성암에서 바라본 너른 들판과 구비구비 흐르는 섬진강 상류, 지리산 자락이 손에 잡힐듯하며 통영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간 장사도에는 동백꽃이 만발했으며 쪽빛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아름다워 신부님과 함께한 여행이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연구소는 신부님께서 헌신적으로 애쓰신 결과 연구소로서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래도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그리스도 사상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다은학당

2024년 봄 학기 강의 안내

- 수강기간 : 2024.4.9.(화) ~ 6.11.(화) 10회
  "봄" 학기 중에는 화요일 10시 미사
- 장　　소 :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1층 강의실
- 대　　상 : 진리를 목말라하는 누구나
- 수 강 비 : 1강좌 당 (10만원) / 온라인 줌(Zoom) 수강 가능
  (신청계좌 : 신협 131-017-273691 한국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 접　　수 : 031-227-7857, 010-4711-8643(교육부)

1강좌

시간 : 오전 11시 ~ 12시 30분
강사 : 이현숙 수녀(마리아의 전교자 수녀회)
주제 : 선교의 인문학

순서	일 정	주　제
1강	4월 9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2강	4월16일	왜 인문학인가?
3강	4월23일	인문학적 성찰 1 나는 누구인가?
4강	4월30일	인문학적 성찰 2 나는 누구인가?
5강	5월 7일	인문학적 성찰 1 어떻게 살 것인가?
6강	5월14일	인문학적 성찰 2 어떻게 살 것인가?
7강	5월21일	인문학적 성찰 1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8강	5월28일	인문학적 성찰 2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9강	6월 4일	유한한 존재인 인간 그리고 초월적인 삶
10강	6월11일	일상의 신앙에 대한 나눔, 토론의 시간

2강좌

시간 : 오후 1시 30분 ~ 3시
강사 : 경동현,박현준,박문수,이미영,황경훈
주제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걷는 길
– 교황 문헌 깊이 읽기 –

순서	일 정	주　제	강 사
1강	4월 9일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2013.11.24.)*	경동현
2강	4월16일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 2020.10.3.)*	경동현
3강	4월23일	신앙의 빛 *(Lumen Fidei, 2013.6.29.)*	박현준
4강	4월30일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2015.5.24.)*	박현준
5강	5월 7일	자비의 얼굴 *(Misericordiae Vultus, 2015.4.11.)*	박문수
6강	5월14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ate et Exsultate, 2018.5.19.)*	박문수
7강	5월21일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2016.3.19.)*	이미영
8강	5월28일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2019.3.25.)*	이미영
9강	6월 4일	사랑하는 아마존 *(Querida Amazonia, 2020.2.2.)*	황경훈
10강	6월11일	나는 간절히 바랐다 *(Desiderio Desideravi, 2022.6.29.)*	황경훈

(18332)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12번길 20-4
T.031-227-7857 F.031-227-0759 kcti1130@hanmail.net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Korea Christian Thought Institute

2024년도 다은학당 시간표

	다은 학기	포 럼
봄	4.9 –6.11 (매주 화요일 1:30–3:00, 10주)	3. 21(목)
여름	8.6–9.3 (매주 화요일 1:30–3:00, 5주)	6.27(목)
가을	10.8–12.12 (매주 화,목요일 1:30–3:00, 10주)	9.26(목)
겨울	25.1.7–3.20 (매주 화,목요일 1:30–3:00, 10주)	12.26(목)

(본 시간표는 향후 연구소 운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정 프로그램

10:30 – 11:00	환영 tea time
11:00 – 11:50	강의
11:50 – 12:00	오후기도
12:00 – 13:30	점심
13:30 – 14:00	고해성사
14:00 – 14:40	묵상기도
14:40 – 15:00	휴식
15:00	파견미사

하루피정
피정인원 – 4명이상
피 정 비 – 10명미만시 / 인당 30,000
10명이상시 / 인당 20,000

1박 2일 피정
피정인원 – 6명 이하
피 정 비 – 인당 5만원
(인원추가시 별도 문의)

* 미사, 강의 있음/ 주방사용, 바베큐사용
(피정비에 시설 사용료 5만원 포함금액입니다.)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Korea Christian Thought Institute

노란 꽃물이 봄을 데리고 왔다

전순미 안나(한국茶 연구소)

목련꽃 이야기 목련과에 속하는 교목
약명 신이(辛夷)
학명 Magnolia denudata. Desr

성질은 따뜻하며 특이한 향기가 있고, 약간 맵고 시원하며, 약간의 쓴맛을 느낄 수 있다.
목련은 봄의 전령으로 음력 정월과 2월에 꽃이 피는데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어 '영춘(迎春)', 꽃봉오리가 모두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한다 하여 '북향화(北向花)', 꽃망울이 붓끝과 비슷하다 하여 '목필(木筆)', 털 이 부스스한 작은 복숭아와 비슷하여 '후도(侯桃)', 옥처럼 깨끗한 나무라 하여 '옥수(玉樹)', 옥 같은 꽃에 난 초향이 난다고 하여 '옥란(玉蘭)', 난초 같은 나무라 하여 '목란(木蘭)', 나무에서 피는 크고 탐스러운 연꽃이라 하여 '목련(木蓮)'으로도 불리고 있다.

신이(辛夷)의 효능

본초에 '신이는 나뭇가지 끝에서 위로 솟구치면서 자라고, 맛도 매우며 기를 흩어 뜨리기에 뇌와 콧속의 풍한을 흩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 신이(辛夷)의 '신(辛)'은 향기(辛香)에 매운맛이 있다는 뜻이고 '이(夷)'는 없앤다는 뜻으로, 본래는 얼굴의 기미를 잘 없애는 효능을 말한다. 독은 없다. '두풍(頭風)'과 두통, 얼굴이 붓고 치아 아픈 것, 몸이 배나 수레에 앉은 듯 뻣뻣하고 멍한 것을 주치한다. 코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낫게 한다. 또한 살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오장과 몸에 한열이 오르 내리는 것을 없애며, '구규(九竅)'가 잘 통하도록 하고, '촌백충(寸白蟲)'을 없앤다. 신이(목련의 꽃봉오리)는 코 막힘, 콧물에 사용하는 중요한 약초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코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